

현장체험(국외) 소감문(개인 작성용)

체험 명	해외현장체험학습-메이뉴상해가늬		
체험국가 및 기관	중국 상해 및 남경	체험기간	2017. 01. 06. ~2017. 01. 09.
학과(부)	중국학부	성명	허혜경
학번	20161381		

이번 해외 현장 체험학습으로 중국을 처음 가게 되었다. 요즘 중국은 급속도로 빠른 성장으로 많이 발전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했었다. 처음 도착했을 때 중국은 공항마저 너무 크게 느껴졌었다.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기차역 지하철역에서도 비행기에서 짐 확인을 하는 것처럼 짐 확인을 했었다.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일어날 위험 또한 많다. 그래서 요즘 큰 도시들은 이런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어서 놀랐다. 남경에서 상해로 도착했을 때 상해는 밤이었지만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다. 높고 큰 건물들이 많이 있고 화려했다. 중국의 예전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모습을 보니 빠르게 앞서나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

< 기차역 안에서 >



< 상해의 야경 >



< 동방명주 앞에서 >

동방명주 안에는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관은 상해의 미래관이였다. 거기에는 앞으로 상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의 기술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, 화면에 비쳐있던 미래의 상해 모습에 감탄했다. 상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.



<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>

다음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갔다. 우리나라의 한 역사가 물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. 밖에 있는 거리는 많이 발전되어있었지만, 이 건물 안과 건물 옆 거리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보였다.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.

그렇게 남경으로 돌아와 그다음 날 남경대학살 기념관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 들어갈 때 있는 큰 동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. 한 아이를 들고 오열하는 모습이였다.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잔인한 만행이 만연하던 때에 남경에서는 300,000명의 희생자가 생겨났다고 한다. 일본인들이 학살을 자행하고 도시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한다. 잔인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, 품고 기억해야 할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우리나라에도 이런 뼈아프고 살 아픈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더 가슴이 아팠고 속상했다.



<중산릉 입구에서>



< 부자묘 들어와서 >

그다음에는 중산릉에 갔다. 중산릉은 중국의 혁명가 쑨원의 묘이며 중산은 쑨원의 호이다. 쑨원은 중국과는 다른 대만 쪽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민주혁명의 선두자라고 한다. 난징에서는 ‘중산릉을 들리지 않는다면 중국인이 아니다.’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쑨원에 대한 중국인의 애정이 깊다고 한다. 중산릉에는 긴 참배로와 오르막길과 392개의 돌계단이 있었다. 모라는 것을 잊을 만큼 경관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 장쑤성에서 가장 큰 삼림 공원으로 손꼽힌다고 한다. 중산릉은 상해에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보다는 자연과 많이 어울려져 있으며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이였다.

그다음에는 부자묘를 갔다 또 다른 이름으로 ‘푸쯔먀오’라고 한다. 부자묘는 난징에서 가장 큰 공자 사당으로 공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공부자에서 이름이 유래 했었다고 한다. 부자묘는 난징에서 가장 운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골목에 건물들이 전통 가옥의 모습이 유지되어 있어서 옛날의 중국을 조금 볼 수 있었다. 이런 난징의 모습은 발전된 상해와는 달리 고전적이지만 화려한 난징을 본 것 같았다.

이렇게 길 것 같았던 3박 4일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서 너무 아쉽고 좋은 경험이었다. 상해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, 난징에서는 예전의 중국의 모습을 대립하면서 보아서 중국을 한 층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.

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상의 만족도와 관련, 아래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	매우 그렇다	그렇다	보통이다	그렇지 않다	전혀 그렇지 않다
1) 프로그램 주제가 흥미로웠다.	5V	4	3	2	1
2) 프로그램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.	5V	4	3	2	1
3) 프로그램 일정과 구성은 적절하였다.	5V	4	3	2	1
4)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.	5	4V	3	2	1
5)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.	5V	4	3	2	1
6) 다음 기획에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.	5V	4	3	2	1
7) 주변 친구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한다.	5V	4	3	2	1